

프로야구 FA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하위권팀들 적극적 영입

삼성, 오재일 4년간 50억원 계약

SK, 최주환 4년 42억원에 영입

전력 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유계약선수(FA)의 영입이다. 허약한 포지션에 실력이 검증된 선수를 데려오는 것만큼 확실한 보장은 없다.

올해 프로야구 FA 시장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구단들의 투자가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많았지만, 필요한 선수를 꼭 잡겠다는 기조만큼은 바뀌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춘 상위권팀 보다는 반등을 꿈꾸는 하위권팀들이 외부 FA 영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이다.

올 시즌 8위로 5년 연속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한 삼성 라이온즈는 취약 포지션인 1루를 채우기 위해 두산 베

어스 주전 1루수 오재일에게 4년 50억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어 사인을 이끌어냈다.

제일기획으로 운영 주체가 이관된 후 투자에 인색했던 삼성이 외부 FA에 손을 뻗은 것은 2017년 11월 포수 강민호 이후 3년 만이다.

삼성은 국내에서 가장 큰 잠실구장을 안방으로 쓰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오재일이 타자 친화적인 새 홈 구장에서 활황 날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규시즌 2위에서 올해 9위로 내려앉은 SK 와이번스는 2루수 최주환에게 거액을 베풀었다.

신임 민경삼 대표이사가 직접 전면에 나선 가운데 SK는 4년 총액 42억원으로 최주환을 영입했다.



오재일



최주환

마찬가지로 가을야구 문턱에서 주저앉은 KIA 타이거즈는 타격왕 최형우에게 3년 총액 47억원을 선사했다. 4년 전 프로야구 최초 총액 100억원 시대를 열었던 최형우는 만 3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또 한 번 재판을 터

뜨렸다.

하위권팀들의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거리는 한화 이글스와 두산 외야수 정수빈이다.

한화는 정수빈측 대리인과 만나 계

약 조건을 전담했다.

허경민을 잔류시켰지만 오재일과 최주환을 떠나보낸 두산 역시 정수빈을 위해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높은 액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빈이 두산에 남더라도 한화가

이미 그룹으로부터 확보한 실탄으로 영입 타격을 새롭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위권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미희기자

‘라스트 댄스’ 라던 두산, 김재호까지 잡으면 대성공

과감한 투자로 허경민·정수빈 잡아



왼쪽부터 허경민, 정수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큰 손이다.

두산 베어스가 적극적인 투자로 출혈을 최소화 하고 있다.

두산은 16일 정수빈과의 FA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 6년에 계약금 16억원, 연봉 36억원, 인센티브 4억원 등 총액 56억원이다. 보장 금액만 52억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다.

정수빈의 몸값은 그를 간절히 원하는 한화 이글스가 쟁탈전에 가세하면서 FA 시장 초반보다 크게 상승했다. 두

산은 정수빈이 꼭 필요한 전력이라고 판단, 거액을 약속한 끝에 잔류를 이끌어냈다.

앞서 두산은 내야 자원이자 또 다른 1990년생인 허경민과 7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25억원 포함 4년 65억원에 3년 20억원의 선수 옵션이 포함됐다.

FA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두산을 향한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다.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꾸준히 매각설까지 흘러나온 탓에 거액이 필요한 FA 시장에서 선수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두산은 적극적인 투자로 핵심 자원을 늘려 왔고 있다. 최주환(SK·4년 42억원)과 오재일(삼성·4년 50억원)이 떠난 것은 아쉽지만, 허경민과 정수빈의 잔류는 예상을 벗어난 행보로 보기에 충분하다.

두산이 외부 FA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남은 과제는 또 다른 FA 자격 선수인 김재호, 이용찬, 유희관과의 재계약이다.

이용찬은 팔꿈치 수술로 한 시즌 가량을 쉬었다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고, 유희관은 8년 연속 10승을 했지만 구위는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다. 협상의 무게가 구단 쪽으로 좀 더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재호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만 35세로 적잖은 나이이지만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로 꼽힌다. 우승권에 근접했지만 유격수 포지션의 고민을 안고 있는 팀이라면 충분히 탐낼 만한 선수다.

정수빈과의 계약을 마친 두산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선수와의 협상에 집중할 태세다. 김재호까지 잡는다면 올해 두산의 2020년 FA 시장은 성공이었다고 평해도 큰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서선욱기자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2승, 슈퍼세이브 우하림 MVP

인천시청 31대 17 제압...19일 3연승 도전



14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광주도시공사 대 인천시청의 경기, 광주도시공사의 골키퍼 우하림이 슈트를 막고 있다. (사진=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인천시청을 누르고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2연승을 질주했다.

14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

아리그에서 인천시청을 31대 17로 제압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2일 경남개발공사를 32대 25로 누른 뒤 이날도 승리, 2연승으로 2승1무2패를 기록했다.

김미희기자

이날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2분46초 강경민(CB)의 첫 골을 시작으로 인천시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인천시청은 광주도시공사의 압박에 실책과 파울을 범하며 무너졌다.

강경민은 전반에만 10골을 성공시켰으며 골키퍼 우하림은 13개의 슈트 중 9개를 막아내면서 방어율 69.2%를 기록했다.

후반에도 광주도시공사는 파상 공세를 펼쳤으며 강경민 14골, 서아루(레프트윙) 7골, 원선필(피벗) 5골을 기록했다.

우하림은 35개의 슈트 중 19개를 막아내며 최종 방어율 54.3%를 기록하며 이번대회 MVP를 수상했다.

오세일 감독은 “이날 경기는 우하림 골키퍼의 선방과 인천시청의 공격을 원천 차단한 수비가 좋아 이길 수 있었다”며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어 다음 대구와의 경기도 자신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19일 오후 1시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컬러풀대구를 상대로 3연승 사냥에 나선다.

김미희기자



천하장사 장성우, 한라장사 오창록(대한씨름협회 제공)

영암군민속씨름단, 천하장사씨름대축제서 이름 떨쳐

장성우 2년 연속 천하장사·오창록 3년 연속 한라장사 등극

영암군민속씨름단이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정읍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2년 연속 천하장사와 3년 연속 한라장사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그 이름을 전국에 다시 한번 떨쳤다.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전북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장성우 선수가 대회 마지막날인 13일 천하장사 결정전에서 태안고등학교 최성민을 3대2로 승리하며 천하장사에 등극하였다.

지난해 영암군민속씨름단 입단하여 천하장사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

켰던 장성우 선수는 이로써 천하장사 2연패 달성과 올해 설날 대회, 평창평화 대회까지 3관왕을 달성하여 백두담 신승강자로 자리 매김하였다.

또한 지난 10일 열린 한라장사결정전에서 오창록 선수는 경기 광주시청 박정진 선수를 3-0으로 제압하며 3년 연속 천하장사대회 한라장사 등극으로 개인통산 6번째 장사에 올랐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이번 대회에서 두 명의 장사 타이틀 추가로 총 29회 장사 배출, 전국체전 2회 금메달 획득의 성과를 거두며 씨름단의 절대강자로서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창단 후 4년동안 역사적인 대기록을 써 내려가며 영암의 우수한 농축특산물 홍보와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대한민국 씨름과 영암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19일까지 전북 정읍시에서 열리는 정읍 민속리그왕중왕전 대회에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최강단(단체전) 결정전에 참가하니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발렌시아 이강인, 코로나19 털고 훈련장 복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강인(발렌시아)이 회복을 마치고 팀 훈련에 복귀했다.

발렌시아는 16일(한국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훈련에 임하는 이강인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강인은 지난 1일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의심돼 곧장 훈련에서 제외됐다.

이후 스페인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공개됐다.

이강인은 지난달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소집돼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에 출전했다.

당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사진 속 이강인은 트레이닝복을 입

은 채 페이스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다.

건강을 되찾으면서 조만간 이강인은 경기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르면 17일로 예정된 테라사와의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가 그의 복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